

사랑의 영원성 고전 13:8~13

플트레인은 20세기를 가리켜서 ‘터전이 흔들리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들이 무참히 깨어지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번 실망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실망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어른이 되어 포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봤더니 세상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정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에는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두 번째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지지분한 면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실망을 한 뒤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왔고 진리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리로부터 실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찾아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교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진리의 모순성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저는 목사가 되며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본문으로 주어질 때 마다 내가 경험한 진리를 간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의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중학교 3학년 전까지는 재미삼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 3때 수련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면 헛된 것이다. 생각해 보라. 주일, 수요일, 목요일에도 교회를 오는데 그 시간을 십년, 이십년, 삼십년 합산해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시간이 오히려 너희의 삶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라”고 저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따라 계곡 돌 위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고 저의 모든 죄를 회개케 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까지 모두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한 영적 은사들을 체험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저를 기도모임에 데리고 갔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6개월 동안 한 주간도 빠짐없이 친구들과 철야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그 깊이를 보게 되면서 많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은 그렇게 존경할만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힘든 것이 아

니라 그들의 삶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고통으로 몰고 간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선과 악이 제 안에서 싸우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칼을 갖다놓고 울면서 “하나님 이 칼로 제 손을 자르면 다시는 범죄 하지 않을까요?”라고 기도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병자들도 치유하고 집 나간 제 친구들도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하나님의 목자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유일한 희망은 신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 전도사님 일테니까 나의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아버지를 일주일 내내 설득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선배들과 수업 전 30분 동안 예배드리고 나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신학교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바빠서 시험감독을 못한다며 “여러분은 모두 신학생이니 자율에 맡기겠다”며 나가셨습니다. 교수님이 나가시자 옆에 선배가 “잘 모르겠다. 중간고사도 아닌데 책을 볼까?” 하며 책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선배들도 책을 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모든 일은 제게 절망과 실망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신학을 하게 된 친구도 자퇴했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병이 나았던 자매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내 안에 이 모순이 극복되지 않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생명을 구원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교회 안에는 비리와 다통과 분열이 있는 것일까”하며 해결할 수 없는 의문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진리

저는 날마다 술을 마시며 제 인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기로 했습니다. 입대하기 며칠 전 그날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어머니 얼굴 빗기가 죄송해서 조용히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성경이 눈에 들어온 순간 혐오감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인데 하는 생각으로 펼쳐들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 심령 가운데 송곳처럼 꽂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모든 갈등과 모든 모순이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주와 만물보다 크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어찌 그 하나님이 모순과 거짓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이 유한한 존재가 어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를 다 담을 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 속에 있는 진리는 조각에 불과했구나. 그런데 나는 마치 그것이 전부이고 절대인양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제가 경험한 진리를 잘 표현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장님들이 사는 마을에서 세 사람이 코끼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았고,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 배를, 세 번째 사람은 귀를 만졌습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코끼리 생김새에 대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전봇대 같이 크고 우람한 놈이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본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어”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장님은 “다 틀렸어.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자기주장이 맞다고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장님

의 의견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내 안에 와 있는 진리가 거짓되거나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진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틀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진리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모순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다시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제가 전부가 아닌 조각이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로 결심한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부분이고 조각이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교회의 분열은 그들 가운데 양보하지 않으려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어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는 진리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 진리는 나를 영원으로 이끌 것입니다."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부분이요 조각이요 모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간곡한 말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진리, 모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싸운 두 번째 원인은 '진리의 미성숙' 때문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교회의 다툼은 교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나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이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에서 모순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의 장점인 단순, 순진, 절대 의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의존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행동 중 부정적인 '고집'은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사랑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5장 12절은 믿음의 사람이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일을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한 모든 것은 진리를 선포했고 행한 모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행한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러기에 그 분은 진정 우리의 구주시고 모범이십니다. 사랑 없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따라 말씀을 실천할 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음과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따지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루기 위한 기적, 성공하기 위한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루는 기적, 성공하기 위한 기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기적, 버리는 기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기적을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근심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고통이 쉬지 않고, 모순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무한한 양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을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